

제410회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30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개선의 건
2.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
3.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
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125286)
5.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의안번호 2124747)
6.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
7.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
8.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
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10. 현안질의(추가)

상정된 안건

1. 간사 개선의 건 2
 - 간사(태영호) 인사 2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2.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 2
3.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 2
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125286) 2
5.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의안번호 2124747) 2
6.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 2
7.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 2
8.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 2
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10. 현안질의 4

(11시39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일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개선의 건이 있어 이를 먼저 처리한 후 신규 안건 상정과 법안소위 통과 결의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개선의 건

○위원장 김태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그간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셨던 김석기 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간사직 유지가 어려움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태영호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태영호) 인사

○위원장 김태호 태영호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의 간사를 수행하게 될 태영호 위원입니다.

여야 사이에 외교·통일·안보 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이용선 간사님을 제가 잘 받들어서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외통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신규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

3.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

(11시41분)

○위원장 김태호 이 중 의사일정 제2항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125286)

○위원장 김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3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상정한 3건의 결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결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의안번호 2124747)

6.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

7.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

8.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

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대안)

(11시42분)

○위원장 김태호 의사일정 제5항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입니다.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안건 9건을 심사한 결과 이 중 4건을 의결하였고 5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은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최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등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하여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이동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로 국제기구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유관국의 입법기관이 자국 행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고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결의안

에 대해서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동해 표기 촉구안 관련해서 의안 순서가 뒷부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특히 오늘 새로 간사로 선임되셨으니까 다음에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약속을 좀 주시는 게 서로 간의 어떤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결의안 관련해서 장관계 좀 여쭙볼 텐데, 국회 결의안 통과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두 번에 걸쳐서 중국의 강제 북송 관련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2011년도 결의안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다음에 바로 강제 북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의안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실질적으로 막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APEC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주석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강제 북송을 직접 언급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으로 인도한 사례가,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실제 그런 역할은 안 하면서 국회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 결의안,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풍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APEC에서 만나서 이 부분도 전혀 언급을 못 했을 텐데, 이번에 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있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박홍근 위원 왕이 장관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언급을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저희 외교부는 중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중단 촉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촉구만 하고 그냥 이런 식인데 전혀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잖아요. 국회가 이 결의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만큼 정부

는 실질적 성과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가 큼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국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중국과 이야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꼭 중단을 해야 된다 하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결의안 없이도 박근혜 전 정부 그다음에 2008년도인가에 이명박 대통령도 실제 그때 또 이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는데 이 국회 결의안이 힘이 될 거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정부는 두 손 놓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장관 박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가치외교가 실제 이런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위원장 김태호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그걸 정부가 좀 더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런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예,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축조심사 차례입니다만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결의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의안의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결의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박진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외교 현안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교부 소관 의안을 우선적으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서 태영호 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외교부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혹 회의를……

○이용선 위원 현안질의를 좀……

○위원장 김태호 이용선 간사님.

○이용선 위원 오늘 법안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최근에 외교의 중대 현안들이 많이 발발하고 있는 만큼 현안질을 가능한 분, 필요한 분은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두 분 간사 간 상의는 하신 거지요?

○이용선 위원 (고개를 끄덕임)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 현안질의

(11시52분)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되었던 현안질의 의사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몇 분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호 지금 현안질의 바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5분으로 하되 현안질의를 원하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1회에 한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의장님이 제일 먼저……

양보하시겠습니까, 의장님?

○박병석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태호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장관님!

○외교부장관 박진 예.

○윤상현 위원 장관님께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셨는데 결과가 아주 참패로 끝났습니다. 정말로 예상 밖 참패인데 예상을 못하셨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는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분석은 어떻게습니까? 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희망 말고.

○외교부장관 박진 그동안의 판세를 가급적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애석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예상 밖의 참패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후보주자로 이번 유치활동에 들어갔고 또 민관이 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역시 역부족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1차 투표에서는 어렵더라도 2차 투표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뛰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후보주자로서 이제 막 벼락치기 전략으로 임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석 중에 정보력이 부족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가 완벽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관이 원팀이 되어서 182개 국가를 여러 번을 방문하고 또 관련된 정부 관료나 엑스포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수차례 만나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서 판세를 다시 분석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1차 투표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몇 표 정도?

○외교부장관 박진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1차 투표에서 최대한 그런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임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정보력이나 분석력이 부족했다, 또 게다가 외교력도 부족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의 희망적인 사항, 엑스포 유치라는 위시풀 싱킹, 영어로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국정과제로 열심히 뛰시니까 유치 가능하더라는 게 일종의 우리 정책 결정 과정 중에 그룹 싱크(group think)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동의는 안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에 진다고 생각하면서 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세지만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뛰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일선에서는, 외교부 일선에서는 힘들다라고 했는데 워낙 위에서 그룹 싱크가 강하다 보니까 토를 못 다는 그런 정책결정 과정은 없었나 한번 만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엑스포 참패를 계기로 우리 외교 역량을 보완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석하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 외교력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 외교부하고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다른니까?

중국에서는 3국이 조건을 만들어서 관련 준비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동의했다, 조건을 만든다, 무슨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까, 3국이 정상회의하는데?

중국이 얘기하는 조건이 뭐니까, 장관님?

무슨 조건을 만들어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가능합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중국이 ‘조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가 조속한 시기에,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자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었고……

○**윤상현 위원** 그러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의 발표가 잘못된 거네요?

조건을 만든다는 것,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박병석 의장님 질문해 주세요.

○**박병석 위원** 이번에 엑스포 유치에 관해서는 원팀 코리아가 되어서 대통령부터 재계까지 한몸이 되어서 뛰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지만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성했다는 것도 긍정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이 턱없이 빗나간 데 대해서는 결정적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엑스포는 일단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박병석 위원** 제가 먼저 한 건, 결정적으로 빗나간 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 주세요.

○**외교부장관 박진** 예,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희망적인 진단을 하고 특히 유력 매스컴이 부산 현지에 부스를 세워서 생방송을 하고 유력 언론이 51 대 49 대역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일주일 전까지 파리에 가서 직접 PT를 하고 했는데 결과는 119 대 29가 된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우선

열세에 있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 상대국을 저희들이 추격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는 어렵더라도 2차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에 임했습니다.

또 경쟁 상대국의 공세가 점점 더 아주, 마지막에는 상당히 치열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로서는 그러한 판단에 입각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정부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실패한 책임에 있어서 관계자들이 사우디의 오일머니 때문이다 또는 문재인 정부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변명은 오히려 한국을 더 구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밝혀낼 때 다음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대통령께 보고되는 각종 사항이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엑스포 투표 결과의 예상치만, 이런 결과가 이렇게 보고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 전반의 여러 가지가 진실과 다르게 듣고 싶은 데만 골라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엑스포 마지막 점검하는데 있어서는 국정원의 정보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북관계 9·19 군사합의의 문제, 정찰위성의 발사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정작 주무기관인 정보기관들은 내부 싸움으로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정부가 나라를,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반성과 점검을 해야 될 때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정부로서는 이번 패인을 심층 분석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도 있지만 또 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외교망이 확충이 되고 또 경제·안보가 강화되고 또 우리 국력이, 위상이 올라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진정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이 못 이룬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도 대역전극에 기대를 가질 정도로 판단하게 한 것이 이 엑스포 하나뿐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정확히 민심을 읽고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를 용산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앞날은 물론이고 국민과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이번에 원팀이 되어서 재계가 총력을 다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보낸 시간과 자원,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 됐는가, 지금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서 재계 총수들이 몇 달씩 전 CEO들을 동원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이어서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 보니까 이 엑스포 문제와 관련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장관께서도 졌지만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합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잘 싸웠다고보다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판세 분석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능한 것이 다 드러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는 이렇게까지 판세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프랑스까지 막판에 가서 정말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그리고 국민을 속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는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반성과 그리고 국정운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께 제가 참 실망스러운 문제인데요. 지난 23일 고등법원에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알고 계시겠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일본은 보니까 자기네들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는커녕 아주 적반하장입니다. 그것도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일본 외무대신은 한국 사법부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 정기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하는 담화를 내고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런데 26일 날 일본 외무대신이 보도에 의하면 장관께 이런 내용을 그대로 직접 항의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외무대신이 한국의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라고 압력을 넣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주권 침해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전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익명으로 관계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도대체가 왜 일본 앞에서 이렇게 저자세가 되는 겁니까? 퍼 줄 대로 다 퍼주지 않았습니까?

장관, 지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반점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하는 얘기 또 얘기하지 않겠는데, 도대체 장관께서는 일본의 외무대신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외교부장관 박진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엑스포 유치활동을 하면서 우리 부산을 지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지지도 하고 또 구두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세를 가급적 객관적이고 또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한 만큼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히히……

○**김상희 위원** 그러면 기대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외교부장관 박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판세를 읽고 계셨는데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신 겁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판에 대통령이 프랑스 가지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김상희 위원** 뭔가 판세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박진** 저도 이번에 프랑스를 대통령 모시고도 가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도 가서 전부 다섯 번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산엑스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표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의미 있는 답변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장관 박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김상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한국 정부가 그래도 적어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한국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한일본대사 초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박진** 위원님, 우리 정부는 아시다시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서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러한 점을 일본 가미카와 대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또 이번 판결에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원칙인 국가면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정말 뼈아픈 패배를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또 혹시 제도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서 제가……

국회의원들 투표할 때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투표를 원내대표 선거인데 원내대표 선거를 하다 보면 포커페이스를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예측한 것보다 턱없이 적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랑 비교했을 때 이번 엑스포 선거는 그만큼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 실패인데, 그 나라의 국가 핵심 정보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를 찍어 줄 건지 안 찍어 줄 건지 계속 오판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나라 국정원은 북한 중심 정보를 취합하는 것을 중심으로 쪽 활동해 왔고 외교부도 북한과 경쟁하는 외교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 중심, 북한만 바라보는 외교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외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만 바라보면 그 나라의 대북정책 담당자하고 주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 나라 핵심, 그렇지요? 그 나라 대통령·총리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적인 정보 수집도, 이게 주로 언론의 역할인데, 이번에 장관님 총 몇 나라였지요, 유권자?

○**외교부장관 박진** 이번에 179개국 유권자였습니다.

○**河泰慶 위원** 179개 중에 우리나라 언론이 가 있는 나라가 한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언론 특파원 말씀입니까?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河泰慶 위원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절반도 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 되려나? 171개국에 파견해 보십시오. 그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특파원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상적인 접촉이 가능하고 취재도 가능하고, 사실 그 취재라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인터뷰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을 해서 특파원이 가야 되고 BBC·CNN 인터내셔널 있는 것처럼 KBS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안 그래도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한국의 영향력이 속속들이 미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그걸 취재하는 기자들도 없어요, 그 나라에. 제가 외교부 국감 가 보면 기자들이 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슬프게도.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정보 인프라를 굉장히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도 인력을 더 확대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G7급 중심의 외교를 해야 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교해서 외교부 인력도 더 늘려야 된다. 그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떨어졌지만 5년 뒤에 다시 한번 재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박진 저는 부산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의 꿈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정은 부산시가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한국마술협회를 맡고 있어 가지고…… 마술올림픽이 있습니다. 3년마다 하는 매직 올림픽이 있는데 그걸 제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경합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들 계속 지역구에 초대하고 아무튼 노력해 가지고 두 번째 재수해 가지고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려면, 합격할 수 있으려면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걱정은 이 패인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나, 그 정도 역량은 되느냐 하는 거고. 여기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운을,

국력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굉장히 정말 크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병석 의장님 있지만 전임 국회의장님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외교 자산입니다. 전 세계 제일 많이 가 보셨잖아요. 박병석 의장님이 안 가 본 나라가 없을 걸요? 그 나라 정상들, 중요한 분들, 안 가 본 분들이 없고, 그런 외교적 자산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이 자산들을 정말 활용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외교 자산…… 그렇잖아요, 이것 무형의 자산, 인적 자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리스트업(list up)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 국운 상승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런 표결 싸움이 벌어지면 총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만 가도 그게 잘되어 있어요. 이게 대국 외교하고 소국 외교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국 외교를 하고 있다, 개도국에 맞는 외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관께서 굉장히 아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보도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언론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외교도 정말 소국에서 대국 외교가 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회에 부산엑스포 유치 특위도 있고 또 외통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유치를 위해서 의원외교를 활발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땀방울이 이번 결과가 나오는 데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뼈아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대 수준이 있었고 실제 결과가 있는데 차이가 컸습니다. 다만,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이 격차가 줄어들고, 1차 투표는 몰라도 2차 투표에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국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린 국가도 있었고 또 정부가 교체되어서 입장이 바뀐 국가도 있었습니다. 또 막판에 어떤 이유인지 입장을 바꾼 국가도 있었고 또 실제 투표하는 당일 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부 합쳐져서 마지막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패인을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이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정부의 외교 역량, 외교 수준,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패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최선은 다했지만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가장 큰 패인, 아직 패인 분석을 못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지금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의 기대 수준과 최종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뼈아픈 점입니다.

○김경협 위원 사우디가 오일머니로 금권 투표, 표를 매수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그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문제인 정부 탓입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그것은 뭐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세계잼버리대회 실패가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그러한 국가로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경협 위원 아니, 세계잼버리대회 실패가 어떤 영향을 미쳤겠느냐라는……

○외교부장관 박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잼버리대회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느낌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영향 전혀 없다?

○외교부장관 박진 예, 그런 느낌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대회 운영

능력, 국격…… 영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9·19 군사합의 무력화로 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전쟁의 위험이 커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세계 주요국들이 9·19 효력 일부정지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을 많이 표명은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비관적인 입장은 보였습니다만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지금 패인을 분석하는데, 지지하는 나라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29표라고 하는 이 참담한 패인을 분석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어떤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 이래야지 패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우리의 국가 안보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불안이 고조되거나 전쟁 위험이 커진 부분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느냐?

○외교부장관 박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를 뜯구름 잡는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만 올해 249억 예산 다 쓰고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 329억 원이나 또 썼습니다. 거의 뭐 해외에 있다가 한국을 방한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결국은 우리 외교가 전혀, 헛다리 짚고 뜯구름 잡는 외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경협 위원 혹시 국정원으로부터 이것과 관련된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어떤 문제하고 관련한?

○김경협 위원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각국의 지지나 반대에 대한 동향.

○외교부장관 박진 정부 내에서 유치위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종합되고 또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보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공유받은 적이 있냐 이거지

요.

○**외교부장관 박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판세,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정원이 사상 초유의 수뇌부 일괄 교체, 내부에서의 알력과 전체 한꺼번에 다 교체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국정원이 해외 정보 제대로 수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외교는 뜬구름 잡는 외교 하고 있고 정보기관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저렇게 해서 다 교체되고 있고,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유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기관이 해외 정보를 어떻게 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지, 외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분석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 가르기 이념 외교,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전혀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외교의 무능 사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다음번 상임위에서 한번 국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잘 새겨서 심층 검토해서 이런 패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또 유치위원회 또 정부 관계자가 수고한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절대 이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허탈함을 넘어서 민망하기조차 했습니다.

사실 국감 때 여러 번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이 지금 상황 여쭙봤고 대통령실의 미래기획관이 49% 대 51%, 이제는 역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몇 번 해서 ‘아, 상황 자체가, 판세가 바뀌었구나’

라고 저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딱 열어 보니 이것은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자긍심,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대국민 희망 고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전략과 메시지와 상황을 가져갔을까 여전히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항간에서는 블랙핑크하고 BTS가 댄스 딱 그 결과만큼 나온 것 같더라고 이렇게까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하는데 그리고 의구심을 많이 갖는데, 외교부에서 상황판 만들어서 매일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박홍근 위원** 상황판에 어떻게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여러 가지로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표를 할 분들도 만나고 또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대면 교섭도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물론 그랬겠지요.

그런데 표 계산을 외교부가 하고 있고 또 유치가 하고 있었던 것이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을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박진** 관련 정부 기관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당연히 보고가 됐으니까 대통령실의 미래기획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너무나 상황 인식에 차이가 있어서 저는 놀랐습니다.

투표 직전에 1차에서 몇 표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아까는 정확히 말씀은 안 하시던데, 보고는 대통령실에 했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결과 받아 보고 격노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바로 그냥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대통령도 잘못된 정보를 그동안 보고를 받아 왔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 외교부의 판단은 마지막 시점까지 정부 내에서 공유되고 또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사우디가 투표 3일 전에 자신들이 122표를 확보했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국가, 나라 이름을 다 공개를 합니다. 딱 3표 차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뭐 했습니까? 애초에 아랍 동맹들 다 그쪽 몰아줄 거다, 아프리카 다 그쪽으로 정리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은 오사카였나요, 그리고 다음은 또 상하이이기 때문에 계속 아시아 쪽에 몰아주기가 쉽지 않겠다는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이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전략을 써서 득표 전략을 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냥 막 방방, 그냥 무슨 잔치 소리만 그냥 크게 만들어 났다는 말이지요.

저는 도저히 이게 구조적으로 또는 환경, 상황이 어려운 판세라는 현실적인 보고를 대통령께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애초에.

했습니까, 장관이나 유치위에서?

제가 왜냐하면 한번 제대로 된 보고를 올렸더니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보고를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후발 주자이고 또 우리 경쟁 상대국이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격차가 당연히 있었고 그런 격차가 있다는 내용들은 저희들과 정부 관련 기관 또 유치위원회 또 재외공관과 전부 공유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공유를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하여튼 이번에 보여진 국가 외교력이나 정보력 또는 이런 대응 전략이나 실행 방법들 이런 것들을 중간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대통령 눈치 보이고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남 탓하면 더 졸전이 됩니다. 더 창피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외교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도국들이 오일머니만 보고 표를 던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치외교라고 하는 일방향 외교가 이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더 조성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

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차체에 대통령의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온정주의가 아닌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성찰도 해야 되고 그 패인의 주요 원인들도 다 찾아내야 되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로 우리 정부의 일방향 가치외교가 과연 이런 국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성찰적 평가가 있어야 할 때이다, 그래서 이번 엑스포 결과가 윤석열 정부 외교 능력의 리트머스였던 만큼 이제는 그 결과가 나왔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의 국력 낭비가 없게끔 하려면 이제는 그 방향과 전략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때다 생각을 하는데, 이미 개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만 바꾼다고 외교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참 뼈아프고 저희들이 여기서 진정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심층 분석을 하고 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석 위원님.

○정진석 위원 국민들이 매우 아쉬워하는 것 틀림없고요. 유치 실패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보다는 판세 분석 실패에 더 실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 여러 여건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만일에 이번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면 이진 기적이지요. 기적에 가까운 것이지만 실제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략 자체가 1차 투표는 열세니까 만일에 3분의 2 이상을 사우디가 못 얻을 경우에 2차 가ser 역전을 해 보자는 전략이었는데 과거에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1·2등이 2차에서 뒤집힌 결과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목표도 어떻게 보면 참 야심 찬 것인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루기는 참 어려운 목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위원님 말씀들을 다 귀담아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평창동

서울림픽 같은 경우도 세 번의 도전 끝에 간신히 이룬 그런 경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도전해서 실패했다 그래도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투기처럼 우리가 훌훌 털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 여러 국민들에게 우리가 새롭게 용기를 갖고 일어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갈래의 정보를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고 결론을 얻는 것인데, 저는 언론인 출신입니다만 지금의 연합뉴스법을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만드는 법안을 제가 했는데 그때 이 법안을 낼 때 제 모토는 뭐였나 하면 이제는 좀 우리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CNN이나 BBC에 의존하지 말고 세계 각국의 여러 제3지대 국가까지도 우리가 특파원을 좀 적극적으로 파견을 해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가 되었다. 이걸 제가 기치로 내 걸고 연합뉴스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아까 우리 하태경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계 각국의, 우리의 눈으로 정말 세상 지구촌을 객관적으로 보고 또 진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국민들도 그야말로 민관이 어느 때보다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건데 국민들도 정말 마음 한구석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고, 다만 그 기적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 허탈하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것인데,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훌훌 털고 오투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2035 부산엑스포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계획을 저는 세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위원님, 저희가 외교력과 정보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와 상대를 하고 또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도 빠지 않고 저희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서 국익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외교부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9개 나라, 이렇게 치열한 그런 유치 활동 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해 준 나라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를 지지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투표로 이어지지 않은 나라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바른 교훈을 얻으며 이번 결과를 디딤돌로 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장관님, 29개국 전체 회원국 숫자로 보면 16.2%이던데요. 우리 외교 점수가 16.2점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세요? 우리 국회도 열심히 노력한 것 맞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있을 때 국회의 부산엑스포유치지원특위를 만들어서 부산에 시민유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여야 위원이 한 조직씩을 맡아서 여야가 협력해 가면서 유치활동을 지원하자 그런 취지의 특위도 만들고 또 그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매우 열심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부산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외국에 국외 활동을 할 때마다 방문국에서 부산엑스포 문제를 항상 의제에 없더라도 거론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 왔던 일인데 정말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보력 부족, 판단력 부족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영국 국민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를 들러 오시는 걸 보고 그다음에 또 바통 터치하듯이 총리가 직접 총회의 일정에 맞춰서 방문을 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나 보다 이런 착각마저도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을 못 해서 국민들은 더 투표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위원님,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오찬, 만찬 리셉션을 하면서 실제 투표할 분들과 만나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교섭을 한 것은 이번 엑스포에 저는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덕수 총리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정부로서는 참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서 대단히 참 뼈아프게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우리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치 활동을 하러 다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유엔총회에 가셔도 40여 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하고 바로 나가서 사우디 지지 선언한 나라도 있었다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저희가 유치 활동을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데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에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좀 더 묻고 싶은데요.

일본의 가미카와 외무대신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게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 일본 정부는 또 그렇고, 그다음에 1심 재판부도 국가면제의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가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좀 심층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심층 검토가 아니라 국제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알고 계실 외교부장관께서 왜 즉답을 못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민사소송법상 지금 상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번 판결에……

○**윤호중 위원** 제가 국제법에 대한……

○**외교부장관 박진** 국제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윤호중 위원** 비엔나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제인권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면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국제법적 관행으로 세워져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답을 못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도 있고 또 이런 국제법과 관련된 측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신중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호** 윤호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 장관님께서도 표결 전까지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생각 하셨겠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김홍걸 위원** 가능성은 있다?

○**외교부장관 박진**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외교부 쪽에서도 각 지역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터무니없이 틀린 보고를 했거나 고의적으로 기만했다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무능입니까, 고의적인 기만입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외교부로서는 저희 재외공관들이……

○**김홍걸 위원**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 재외공관들이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외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유치 교섭을 벌였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모든 정보를 분석을 하고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정부 기관 내에 공유를 하고 또 유치위원회 그리고 재외공관과도 공유를 했습니다.

○**김홍걸 위원** 외교부의 정보력이 아주 부족했

다 이 점은 인정하시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가 정보력이 완벽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이태리 같은 데는 아예 처음부터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총리도 일부러 파리 안 오고 했는데 공연히 이것 되지도 않을 것을 대통령께서 파리까지 일부러 가시게 만든 것 아닙니까.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외교부가 이 문제에 너무도 크게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 내에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박진** 정부로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말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외교부 내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해외에 자주 나가는데 핑계가 필요하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다 하는 그런 핑계가 필요하니까 외교부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조작해서 올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외교부장관 박진**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엑스포 유치도 물론 당연히 하지만 우리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양자외교, 다자외교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가시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왜…… 이 엑스포 때문에 이번 한 해에 굉장히 많은 나라 정상들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뉴욕 가서서도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잠깐 만나서 덕담하고 헤어지고 또 그다음 사람 만나고 이게 숫자 채우기식이지…… 장관님께서도 그동안에 많은 외국인사 만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잠깐잠깐 만나는 게 효과 없다는 것 아실 것 아닙니까? 숫자 많이 채우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만남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이제는 대통령께 그런 식의 외교는 지양해야 된다고 쓴소리를 좀 하실 생각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정상 차원의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면서 가급적 많은 정상들을 만나서 우리나라가 왜 부산에서 엑스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정상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정상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반성할 점은 반성을 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상외교는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홍걸 위원** 사실 중동 아랍권 표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지만 이번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전투를 중단하라는 유엔 결의안도 우리가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참여하는 결의안에도? 또 아프리카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쪽도 협조를 얻을 수 없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가능한 것처럼……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했다 하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과 국민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국가적인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세계에도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김홍걸 위원** 기만한 게 아니라면 무능이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 정부가 최선을 기울인 겁니다.

○**김홍걸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외교부장관 박진**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중동에……

○**김홍걸 위원** 잠시만요.

○**외교부장관 박진** 인도주의적인……

○**김홍걸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일본의 대사 초치 부분 그런데 국가면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독일에 대해서 이태리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판례를 내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일본 측에 왜 강력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ICJ 판례에서 이태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면제 이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판례도 보고 또 국제법적인 판단도 다수설, 소수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홍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까지 되면 또 이번에도 삼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도주의적인 일시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아울러서 하마스가 처음에 그런 테러 공격을 한 것은 규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결의안이 우리 한국이 지지하는 결의안이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했습니다.

오찬 시간까지도 훌쩍 넘겨 가면서 진짜 열의를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 경 협 김 상 희 김 태 호 김 홍 걸
박 병 석 박 홍 근 안 철 수 우 상 호
윤 상 현 윤 호 중 이 명 수 이 용 선
이 원 욱 전 해 철 정 진 석 태 영 호
하 태 경

○청가 위원(2인)

김 석 기 조 정 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송 병 철
전 문 위 원 정 홍 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 관 박 진
기 획 조 정 실 장 조 구 래
아프리카중동국장 김 은 정
국 제 법 률 국 장 황 준 식
평화외교기획단장 전 영 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2023. 11. 29. 태영호·이명수·하태경·백종현·정경희·안철수·정진석·조정훈·박대수·윤상현 의원 발의)

11월 29일 회부됨

○진정서 송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촉구 결의문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문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 자료로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재외동포청 훈령제8호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2023. 11. 16	2023. 11. 23
재외동포청 훈령제9호	재외동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23. 11. 16	2023. 11. 23